

# 올 상반기 공공공사 수주금액 69% 급증

1-5월간 6,313억원- 업계 “하반기 물량 부족 경기침체 우려”

향후 건설업계 공공공사 수주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발주물량이 줄어든 데다 입찰제도 변경의 영향도 크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올해 1~5월 수주금액은 6,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발

주가 상반기에 몰렸기 때문에 풀이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도내 건설공사 물량은 크게 부족하다. 올해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기관 공사물량은 지난해보다 6,146억원이나 줄어든 3조4,24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2조5,627억원에 달했던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도 올해는 1조6,192억원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9,435

억원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공사 발주가 늦어진 데다 기술형 입찰 등도 잇따라 유찰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시기도 예상을 빚나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공공사물량 자체가 적은 데다 여전히 새로운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건설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 도교육청 국·과장급 11명 인사

도교육청의 7월1일자 지방공무원 승진·보직이동 인사가 20일 단행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개청 이후 처음으로 행정국장과 감사관을 모두 여성으로 발탁하는 등 일반직공무원 504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김경애 행정국장

김경애(57) 행정국장은 “교육선진국 실현을 위해 행정 지원과 교육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 춘천 출신. 춘천여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석사)을 졸업. 인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행정국 행정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 2009년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



박춘매 감사관

박춘매(58) 감사관은 “정당한 교육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 홍천 출신. 홍천여고를 졸업. 1979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국 행정과 재산담당, 행정국 총무과 총무담당, 행정국 행정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남편 김중운씨와 2녀.



심만섭 정책기획관

심만섭(57) 정책기획관은 “강원교육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양양 출신. 양양고를 졸업. 감사담당관 법무담당, 행정과 행정담당,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 감사관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이지연씨와 1남1녀.



임준열 춘천교육문화관장

임준열(59) 춘천교육문화관장은 “학생들의 인문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 영월 출신.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 영월교육청 지원과, 행정국 시설과 시설관리담당, 행정국 시설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신현숙씨와 2남.



박봉희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58) 강릉교육문화관장은 “행복한 배움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피력. 인제 출신. 기린고, 한림전문대 인터넷정보학과를 졸업. 행정국 예산과 교육공무직담당, 감사관 감사총괄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이금순씨와 1남2녀.



안강수 속초교육문화관장

안강수(58) 속초교육문화관장은 “설악권을 아우르는 행복한 교육문화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각오. 속초 출신. 영등포고를 졸업. 1981년 공직에 입문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행정국 예산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정금희씨와 1남1녀.



심동자 감사관실 감사총괄담당

심동자(56) 감사관실 감사총괄담당관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이뤄 나가겠다”고 피력. 인제 출신. 춘천여고, 한국방송대 교육학과, 한림대 사회복지학과(석사) 졸업. 행정국 조직운영과 조직관리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남편 김만수씨와 2남.



김명용 행정국 예산과장

김명용(57) 행정국 예산과장은 “적절한 예산 계획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하겠다”고 약속. 원주 출신. 원주고를 졸업. 기획공보담당관 공보담당, 홍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춘천기계공고 교육행정실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함부자씨와 1남1녀.



안중후 행정국 행정과장

안중후(57) 행정국 행정과장은 “도내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 춘천 출신. 강원사대부고를 졸업. 1985년 공직에 입문해 강원학생교육원 총무과장,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벌녀씨와 1남1녀.



송선호 행정국 시설과장

송선호(57) 행정국 시설과장은 “학교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동해 출신. 목고고, 관동대 경영학과를 졸업. 행정국 행정과 행정담당, 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엄은주씨와 1남1녀.



윤종영 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윤종영(58) 강원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은 “전국 최우수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정선 출신. 정선중고, 한국방송대 행정학과, 한국교원대 교육학(석사)을 졸업.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전영숙씨와 1남.

“정춘 고속도로·북부권 교통난 해소

동서고속철이 열쇠”

<서울~속초 구간>

“성수기 원활 소통위해 동서 수송교통량 강화”

“춘천 레고랜드 개장 맨 신규교통량 발생 경중”

내일 강원 북부권 교통 토론회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량 포화를 비롯한 북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오는 22일 '성수기 주말 강원 북부권의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동서고속철을 비롯한 강원북부권 교통체계 확충이 필요한 이유를 분석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은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지체해소방안'을 통해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주말과 휴일에 차량 지체체가 가장 늦게 풀리고 있다"며 "교통량 분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서울~춘천고속도로는 2009년 1일평균 3만4021대가 이용했으나 지난 2014년에는 4만2059대로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증가량(4.8%)을 뛰어넘는 것으로 교통량 집중이 심각했다.

특히 휴일인 지난 4일 저녁 기준으로 춘천JCT에서 강일IC까지 1시간59분8

초가 소요, 고속도로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단기적으로 가변차선 이용과 같은 본선의 용량을 확충해야 한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안도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전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도 "주말과 성수기에 강원 북부권역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동서축의 수송능력 강화가 필수"라며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주말 성수기에 강원 북부권에 유입되는 통행량의 90%를 차지하는 수도권 통행량을 분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서고속철이 착공되면 평일에 대비한 주말 승용차 통행량의 비중이 143%에서 120% 수준으로 감소, 지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가 개장하면 평일 1만7000대 주말 2만9000대의 신규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남춘천역과 춘천역을 기준으로 2010년 연간 187만명이던 이용객수는 2013년 852만명으로 약 4.6배 증가했으며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교통량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민순 지사는 20일 오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윤호중(춘천교 출신) 의원 등을 만나 서울~속초 동서고속철을 비롯한 강원도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도교육청 인사 프로필

김 경 에 행정국장

김경애(57)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춘천 출신으로 춘천여고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졸업.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지난 1978년 공직에 입문해 감사담당실 법무담당과



인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 행정과장, 시설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부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 수상.

박 춘 매 감사관

박춘매(68)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은 홍천 출신으로 홍천여고를 졸업. 지난 1978년 공직에 입문해 영서고 교육행정실장, 관리국 행정과 재산담당, 행정국



행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수교육발전 유공 공로로 교육 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

심 만 섭 정책기획관

심만섭(67)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양양 출신으로 양양고를 졸업. 지난 1978년 공직에 입문해 강원학생교육원 총무과장, 감사담당관실 감사1·2담당,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



감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강원도교육청 신지식인 교육감 표창과 정부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 중 후 행정과장

안중후(67) 강원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춘천 출신으로 강원사대부고를 졸업. 지난 1985년 공직에 입문해 태백기계공고 교육행정실장, 춘천평생교육정보관 평생학습과장, 감사관 감사3



담당, 강원학생교육원 총무과장,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윤 종 영 총무부장

윤종영(58) 강원도교육청 총무부장은 정선 출신으로 정선중고와 한국방송통신대 졸업 후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78년 공직에 입문해 원주고 교육행정실장, 정선교육청 지원과장, 강원도교



육연수원 행정연수과장,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1회 공무원문제대전 시부문에 입상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심 동 자 감사총괄담당

심동자(56) 강원도교육청 감사총괄담당은 인제 출신으로 춘천여고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 후 한림대 사회복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1년 공직에 입문해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조직운영과 조직관리담당, 강원도교육청 여성공무원협의회 제11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부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부 SOC 예산 축소 강원 건설경기 ‘먹구름’

강원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건설경기가 정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 축소로 빨간불이 켜지면서 강원경제에 먹구름이 깔 전망이다.

20일 도 건설단체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386조4000억원 대비 3.0%(11조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는 20조원으로 올해 예산(23조7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해 15.4%의 감소율을 보였다.

정부는 그동안 SOC사업들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감액했다고

내년 예산규모 20조원 도로·철도사업 등 중심을보다 3조7000억 감소

설명했다. 이는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국내 건설수주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3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일치하는 것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

지게 될 경우 강원경제 활성화를 이끌 원동력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건설분야가 도내 경제 성장에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종합건설업의 연도별 수주실적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수주 현황을 보면 2010년 1조5459억원, 2011년 1조1376억원, 2012년 1조2710억원, 2013년 1조4666억원, 2014년 1조4286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2010년보다 2475억원이나 줄어든 1조298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강원건설에 효자역할을 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도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모두 끝났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SOC 예산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원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분야 활성화가 침체된 강원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지만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이마저도 쉽지않게 됐다”며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건설분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공공공사’ 지체 벌금 10배이상 차이

# 건설사 공사 지체땀 ‘배상폭탄’ 발주처 대금 지연땀 ‘짚땀보상’

건설사 年 36.5% 물리면서  
발주처 연 3.46%만 적용  
지급 금액 기준도 ‘제각각’

공공공사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지연할 때 내는 지체상금 금리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 때 주는 지연보상금 금리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지체상금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공공공사 지체상금 금리는 연 36.5%에 달하는 반면, 지연보상금 금리는 연 3.46%에 불과하다. 모두 같은 벌금 성격을 띠고 있지만 건설사가 잘못하면 ‘배상 폭탄’, 발주자가 잘못하면 ‘쥐꼬리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국가계약법 26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체상금은 계약 금

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방(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행규칙을 보면 현행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은 지체 일수 1일에 대응해 공사금액 1000분의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대출금리로 따지면 36.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B공공기관이 발주한 1000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한 경우, 공사를 1일 지체하면 1억원을 지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356일을 지체하면 365억원을 내야 한다.

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연한 경우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 평균 대출금리 평균치는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연 3.46% 수준이다. 공사금액 1000억원을 365일 동안 못줬을 경우 34억60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한상준기자 newspia@ ▶2면에 계속

## 1면서 계속=‘공공공사’ 지체 벌금 최대 10배 차이

금액 기준도 다르다. 지체상금은 수행한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 기준이지만, 지연보상금은 기성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 기준이다.

이 같은 지연상금률은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 제 45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경우 공사 완료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 일수에 따라 당시 일반 대출금리를 적

용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이후엔 연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70년 8.25% 수준이었지만, 이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며 2008년엔 3.7%, 2013년 이후엔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연 이자액 산출 방법은 지체배상금 산출 방법과 동일한 일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

체상금률은 해당 국가의 대출금리와 연동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이후 20년 동안 이 기준(연 36.5%)을 적용하고 있어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평균 대출금리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1000분의1에서 최대 10000분의2 수준(연리 7% 전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